

이름 임지희

1. 파견대학 관련

파견대학	호주 victoria University
파견기간	2011.7.25 ~ 2012.06.22
귀국여부	네
수강과목(2011 Fall) 및 과목별 수강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utrition and food analysis 2 : 학생이 적은 수업이라 교수님과 직접 일대일로 수업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 - Food preservation : 수업시간에 생긴 의문점을 tutorial 시간에 다양한 예시와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하기 쉬웠다. - Functional food : 다양한 사례와 실험결과를 이용해 기능성 식품의 성능과 효과를 쉽게 알 수 있었다. - Nutrition in community : 교수님이 준비해오신 ppt자료를 수업시간 내내 읽기만 하셔서 조금 지루했다.
수강과목(2012 Spring) 및 과목별 수강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utrition and food analysis 1 : 실험수업을 통해 식품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다. - Nutritional therapeutics A : 사례와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질병에 대한 비약물적인 치료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고, case study를 통해 조금 더 심도 있게 배울 수 있었다. - Nutrition and diet : 영양과 건강에 대한 전반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
Tuition 외 지출한 비용	없습니다.

2. 생활전반 관련

숙소	학교기숙사(2011.07.16 ~ 2011.11.19) : Victoria Place Share(2011.11.19 ~ 2012.06.19)
----	---

숙소비용	학교기숙사 : 주당 AU\$225 Share : 주당 AU\$180(식비포함)
숙소평가	두 숙소 모두 혼자 쓰기에 불편함이 없고, 쾌적하지만 학교기숙사가 share에 비해 금전적인 면에서 조금 더 부담이 되었다.
식사	직접 요리(2011.07.16 ~ 2011.11.19) Share 하는 집에서 제공(2011.11.19 ~ 2012.06.19)
식사비용	직접 요리 시 : 일주일당 AU\$50~100 Share : 일주일당 AU\$50
식사평가	직접 요리 해먹을 때에는 귀찮아서 잘 안 해먹게 돼서 거의 비슷한 식단으로 먹거나 사먹은 날이 많다. 예를 들면 어제 삶은 감자와 계란을 저녁으로 먹었다면 오늘은 감자국, 계란후라이 이런 식으로 같은 재료로 비슷한 음식을 주로 해먹게 되었다. Share 하는 집에서 식사를 제공해 주었는데 다양한 식단과 주로 한국 음식을 많이 해주셔서 좋았다.
보험	자매대학에서 권하는 보험을 샀다. 비용은 일년에 AU\$420 이었다.
한달 생활비(대략)	캠퍼스가 숙소와 떨어진 곳에 있어서 교통비가 하루에 7불 정도 들었고 그 외 프린트 비용 같은 자잘한 것들은 합하면 한달에 거의 500불 정도 사용한 것 같다.

3. 교환학생 파견 전 한국에서 미리 알고 갔으면 좋았을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예) 이것만 알고 갔어도 그런 시행 착오는 피할 수 있었을텐데...

4. 결과보고서 (자유형식) : 글자크기 10, A4 1장 이상

-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저는 부끄럽게도 첫 학기 성적을 모두 F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도 받아 보지 못했던 F라는 성적을 호주라는 낯선 곳에 가서 받게 되니 뭔가 이상하더군요. 호주는 낯선 곳에 적응하는 일, 이주 정도가 지나니 한국에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느껴져 긴장이 많이 풀어 졌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업을 들어가도 불안함을 많이 느꼈었는데 적응 기간이 지나니 한국에서 수업을 받는 것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성적에 대해 안이한 마음들이 생기더군요. 한국과 같이 과목 평가 기준이 있으니 거기에 맞추기만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호주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네 가지 평가기준 중에 한가지를 충족하지 못해도 나머지 세 개를 충족시키면 성적을 받을 수 있지만, 호주는 모든 평가기준을 특정비율 이상으로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것에 대해 몰랐던 저는 한국에서 하던 대로 했다가, 좋지 못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학기는 첫 학기의 결과를 거울로 삼아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했습니다.

호주에서 느낀점 중 가장 큰 것은 모든 것이 느리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빨리빨리'에 익숙했던 저는 그런 점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고 '천천히'라는 것에 익숙해 지니 불편함보다는 몇몇의 좋은 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빠르게 무언가를 할 때에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던 것들이 천천히 하니 보이기 시작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 처리를 함에 있어서 조금 더 꼼꼼히 하게 되더군요. 또한 인내심도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빠른 것에 더 익숙한 저는, 목표를 모든 것을 빠르게 처리 하면서도 천천히 하는 것과 같이 꼼꼼하게 하는 것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처음 호주에 갈 때 주변에서 한국인과는 되도록 어울리지 말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인들과 많이 어울리게 되면 영어가 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외국에 나가니, 저는 한국인들과 어느 정도 어울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영어를 계속 사용해야 하는 부담감과 한국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것이 많이 완화 되기 때문입니다. 모국어인 한국어도 사용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생기는데 모국어가 아닌 영어를 사용할 때는 한국어를 사용할 때 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군요. 이러한 스트레스를 한국인과 어울려서 한국말을 사용하다 보면 조금 완화되고, 서로서로 영어를 사용하면서 부족했던 점을 공유하면서 다음 번에 내가 다른 사람이 겪었던 상황이 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많은 정보를 공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생활을 하다 보니 정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을 통해서도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도 있으나, 그래도 같은 한국인들에게서 얻은 정보들이 조금 더 쉽고 정확하게 이해가 되더군요. 물론 한국인들과만 어울리면 영어가 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적당히 한국인들과 어울리는 것은 낯선 외국생활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미국을 생각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다양한 민족이 어울려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주는 미국 못지 않게 많은 민족이 어울려 삽니다. 농담 삼아 다른 사람들이 '나는 아직 진짜 호주인을 만나보지 못했어' 라고 할 만큼 말이지요. 그 중 중국과 베트남인의 비율이 상당히 높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호주인들이 아시아계 사람들을 중국인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도 중국인으로 오해 받은 적이 많았습니다. 그 중 한가지를 얘기하자면 해산물이 먹고 싶어 찾아간 생선가게 주인아저씨가 중국인이었습니다. 제가 해산물을 사고 계산을 하자, 주인아저씨께서 제게

중국어로 말을 거시더군요. 몇 번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멍하게 있자 그제서야 어디 나라 사람이냐고 물어보시면서 중국인인줄 알았다고 하시더군요. 또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으면 외국분이 중국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저도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중국인, 한국인, 일본인을 구별 할 수 없을 정도니, 제가 중국인으로 오해 받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교환학생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학교 생활도 처음에는 힘들고 무섭겠지만, 학교에는 학생들이 학업을 수월하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글쓰기 교실, 레포트 쓰는 법과 같은 학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고,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과 교수님들도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도 주변에 대한 두려움과 내가 만든 벽을 조금만 무너뜨리면 많은 친절하고 좋은 사람들을 사귈 수 있습니다.

일년 동안 좋고 나쁜 많은 경험들을 하였고, 일년 동안 얻은 경험들이 어떻게 작용 할지는 아직 모르나 한가지 분명 한 것은 일년 동안 겪은 것들이 앞으로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지난 일년이 제게는 제 자신을 다시 둘러 보는 계기가 되었고, 한국에서는 경험하지 못 했던 것들을 경험한 만큼 조금 더 제 자신이 자란 것 같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들이 많고 만일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하는 생각도 가끔 하지만 그래도 지난 일년간에 대해서 후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